카카오 · 해피콘 등 SNS 활용한 모금 확대

[기 획]
포스트코로나 '랜선 기부'

① 코로나로 반토막 불교기부
② 랜선기부 '플랫폼' 어디에?
③ 랜선 '디지털 에이징' 뜬다
④ 불교 랜선기부 롤모델은?
⑤ 포스트코로나 기부문화 미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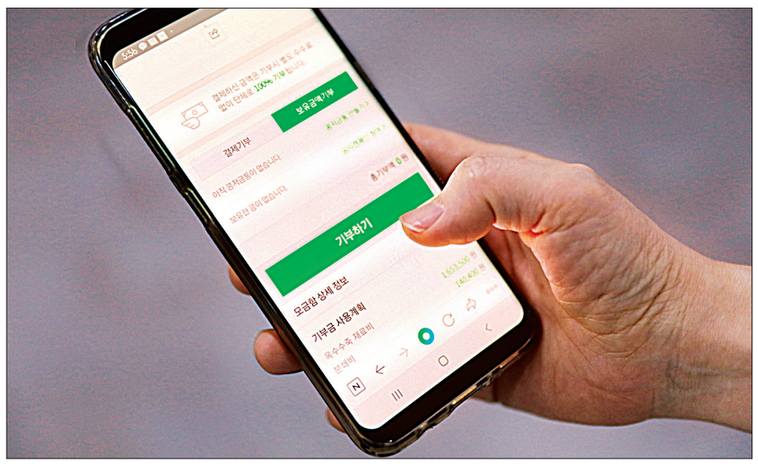
코로나기간 비대면 활용넘어
영상, 후기전달 등 장점많아
모바일전문가 양성 교육 필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최근 사회에서는 다양한 기부플랫폼이 활성화 되고 있다. 빈부격차는 양극화 속에서 최근 코로나로 더욱 심각해졌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미국에서 SNS를 활용해 시작된 아이스버킷챌린지는 새로운 기부문화를 꽃피웠다. 아이스버킷챌린지는 근육이 수축하는 루게릭병 환자의 고통에 공감하기 위해 시작된 캠페인이다. 참가자가 얼음물을 뒤집어 쓰고 그 영상을 SNS에 올려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거나 루게릭병협회에 100달러를 기부하는 형식이었다. 당시 SNS를 타고 수많은 이들이 참여했다. 아이스버킷챌린지가 SNS를 통해 확산된 것은 영상과 사진 등 대면 방식을 통해 전하지 못하는 공감대 형성의 장점이 랜선을 통해 발휘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기간 대면 접촉이 힘든 상황을 타개하는 것으로 각광받는 것이 바로 랜선 기부다. 불교계 랜선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야 한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공익법인인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 등 기존 기부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와 기존에 활성화된 랜선기부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다.

기존 랜선기부 플랫폼 중에서는 네이버 해피빈이 대표적이다. 해피빈의 경우 기부금 사용계획과 기대 효과 등을 명시하고, 집행하는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장점이다. 예전에는 네이버 콩이라는 기부를 위한 별도의 결제수단이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신용카드와 연계된 네이버페이 등 결제가 편리해졌다.


불교계에서도 SNS를 활용한 모금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의 경우 2010년 개설 이후 1억 8399만원을 모금했다. 지구촌공생회도 2005년부터 해피빈을 통해 총 4527만여원을 모금했고, 로터스월드 또한 2009년부터 1949만여원을 모집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후원참여' 를 2008년부터 진행해 지금까지 총 1992만 여원을 모금했으며, 천태종복지재단은 2008년부터 천태종복지재단 응원 기부를 받아 지금까지 총 783만여원을 모금했다.

이 같은 플랫폼 활용은 대면 기부에 비해 공감대 형성이 장점이다. 사진과 영상 뿐만 아니라 후원참여 후기 등도 또 다른 기부 독려요소가 된다.

아름다운동행이 2014년부터 8년간 진행 중인 '탄자니아 어린이 영양지원 프로젝트 해피콘(Happy corn)' 을 보면 현지 아이들이 식사하는 모습부터 이를 후원한 기부자들의 응원메시지 등을 볼 수 있다. 1월 해피콘의 경우 318명이 기부에 참여해 200여만원을 모금했다.

아름다운동행 유미란 팀장은 "온라인 모바일 기부의 경우 소액 일반기부인 것이 특징이며, 광범위한 모금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며 "형식을 떠나 기부프로젝트에 대한 의미나 진행상황 등을 전하기 쉬운 장점을 활용해 지속적인 메시지 전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랜선기부의 장점이 부각되는 최근에는 네이버 해피빈을 롤모델로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과 연계된 '카카오 같이가치' 도 활성화되고 있다. 아름다운동행을 비롯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자양종합복지재단, 나눔의집, 조계종 문수사 등이 카카오 같이가치에 프로젝트를 개설한 상태다.

카카오 같이가치의 경우 네이버 해피빈에 비해 카카오채널을 통해 자연스럽게 카카오톡을 통한 소식도 받을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장은 "소셜펀치, 와디즈와 같은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 유튜브 채널을 통한 기부모연 등도 생겨나고 있다. 이같은 방식에 관심이 필요한 이유는 세대를 넘어 모바일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 정보전달력이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시대적 흐름 속에 모바일을 비롯한 온라인 모금 전문가 양성과 함께 근본적으로 고령화된 불자들이 디지털, 랜선기부에 접근하는 디지털 에이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도 코로나 의료인 '무료 템플스테이'

불교문화사업단, 3~12월 시행
전국 100여 개 사찰에서 운영
동반 1인까지 무료 지원 가능

지난해 많은 호응이 있었던 코로나19 대응 의료인, 방역관계자 등을 위한 토닥토닥 · 쓰담쓰담 템플스테이가 올해에도 이어진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하 문화사업단, 단장 원경)은 "올해도 코로나19 대응 의료인, 방역 관계자, 여행업계 및 문화예술 관계자 등에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무료 지원한다"고 3월 2일 밝혔다.

문화사업단이 진행하는 휴식형 무료 템플스테이는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00여 개 사찰에서 연중 이뤄지며, 신청은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가능하다.

문화사업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해 처음 선보인 토닥토닥 및 쓰담쓰담 템플스테이를 올해도 계속해서 운영한다.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과 방역 관계자에 최대 3박 4일간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무료 지원한다.

쓰담쓰담 템플스테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여행업계 관계자에 이어 올해는 문화예술계 종사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최대 1박 2일간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무료 제공한다.

토닥토닥 · 쓰담쓰담 템플스테이 모두 동반 1인까지 무료로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다.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를 신청하려면 코로나19 대응 근무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병원 등으로부터 받아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감염병 전담병원 근무자는 재직 증명서로 증빙 가능하다.

쓰담쓰담 템플스테이의 경우 소기업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여행이나 관광업계 관련 자격증, 예술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경제적, 심리적 힘듦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공익 템플스테이를 확대 운영하게 됐다"며 "산사에서의 휴식으로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 종단 교육체계도 안정화

3월 2일 68명 졸업생 배출
3일 중앙승가강원 입합식도

태고종(총무원장 호명)이 종립 동방불교대학 제36 · 37회 졸업생 68명을 배출한데 이어, 중앙승가강원 입학식을 진행했다. 이는 그동안 종단 내홍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종단 교육체계가 안정됐음을 드러내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이사장 호명)은 3월 2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강당에서 36회 · 37회 졸업식을 진행했다. 36회 졸업생은 불교학과 26명과 범패학과 4명 총 30명이며 37회 졸업생은 불교학과 31명, 범패학과 7명 등 38명이다.

이번 졸업생들은 2018년도 입학생들과 2019년 전기 입학생들로 2년간의 학문 연마과정을 거쳐 소정의 졸업 학점 이수와 함께 졸업 자격을 취득한 학생들이다. 특히 2018년도 입학생들은 지난해 2월 졸업식을 거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졸업식을 연기하고 졸업장은 사전 우편으로 발송했다.



3월 2일 동방불교대학 졸업식 모습.

한편 태고종은 3월 3일 2021학년도 중앙승가강원 입학식을 진행했다. 올해 입학생은 대교과 10명, 사교과 12명이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이날 입학식에서 대교과 강주 화엄 스님과 사교과 강주 도종 스님에게 각각 임명장을 전달하고 종단의 동량 교육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안심정사, '안심승신불학원' 첫 가동

서울도량, 3월 9일 입학식
스님 · 전법사 위한 전문교육

모든 스님과 전법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소양은 물론, 기도와 신행, 의식 집전 등 총체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기관이 본격 가동된다. 안심정사가 추진해 온 '안심승신불학원' 이 올 3월 문을 열고 불교전문교육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할 전망이다.

안심정사(회주 법안)는 스님과 전법사 대상 전문교육기관 '안심승신불학원' 을 설립하고 제1기 사찰운영지도자 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안심승신불학원은 회주 법안 스님의 교화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스님과 전법사들에게 대승불교 정통교리와 사찰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교육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동안 태고종이 배출한 스님과 전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교육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태고종 소속 스님과 전법사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태고종 소속이 아니더라도 전문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과정은 2년 4학기제로, 현장 강의 및 코로나19 사태를 염두에 둔 비대면 강의 등으로 진행된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을 승신불학원장으로,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철학박사)과 범패 · 작법무 예능보유자 능화 스님, 군산대평생교육원 역학전담교수 송월 스님 등이 강사로 대거 참여했다.

정규교과목은 법안 스님의 '사찰운영 및 상담비법' , 능화 스님의 '실용불공 의식' , 양청운 박사의 '행복불교학' , 범천법사의 '대승불교 교학체계 연구' 이며 매월 1회 신행실수 교육이 진행된다. 특강교과목은 법담 스님의 '대승교학 · 경전 강독' , 송월 스님의 '불교상담학(역학)' , 이현정 박사의 '불교스피치 · 설법방법' , 도원 스님의 '불교문화와 명리학의 이해' , 도명 스님의 '비교종교학과 기도스피치' 등으로 구성됐다.

3월 9일 안심정사 서울도량에서 입학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1학기는 3월 16일~7월 6일까지, 2학기는 9월 7일~12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된다. 등록금은 1학기 50만원이며 성적우수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010-2142-4557

송지희 기자

처음 펼쳐보고 밤새워 노래(頌)를 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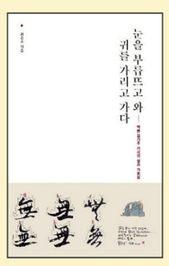
백봉 김기추 강송 | 312쪽 | 양장 | 18,000원

"산에서 내려와 보니 조그마한 금강경이 있어요. 번역이 아니에요.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고, 어떻게 어려운지!
그런데 대강 보니 굉장한 책이라!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르는데. 반야바라밀다니 뭣이니 전혀 몰랐죠.
한데 가만 보니 '대강 이 말이다' 하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게송(偈頌)을 달아봤습니다.
게송을 달기 위해서 단 것도 아닙니다, 재미로 달았습니다.
전부 달고 나니 새벽 4시 15분 전이에요. 그 때 책을 낸다느니 이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책이란 학자들이 내는 것 아닙니까? 나 같은 무식쟁이가 어떻게 책을 낼 겁니까?"

〈저자, 1982.7〉

1976년에 출간한 4판을 현대 감각에 맞추어 재 편집

거사 생존시의 최종 판인 1976년판은 한자를 많이 써서 한글세대가 해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곳곳에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있어 글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한자를 모두 한글로 바꾸고 부분적으로 문장이나 단어의 순서를 조정하였다. 그러나 한자를 괄호 안에 표기하여 한글화에 따른 오해가 없도록 하였고 한글세대에게 낯선 어투도 뜻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굳이 바꾸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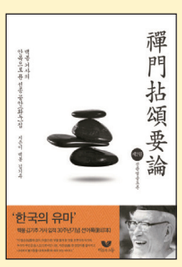
눈을 부릅뜨고 와 귀를 가리고 가다
백봉 김기추 거사 일대기
최운초 지음 | 2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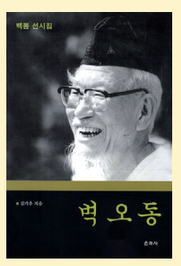
공겁인1, 2
백봉 거사를 모시고 치열하게 수행을 한 제자들의 수행이야기와 백봉 거사와 인연이 깊었던 스님들의 인연 이야기가 들어 있다.
최운초 지음 | 각권 1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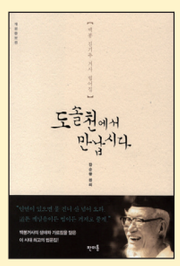
유마경 대강론
백봉 김기추 강론
불광출판사 | 18,000원



선문염송 요론
백봉 김기추 지음
비움과소통 | 12,000원



벽오동
백봉 선시집
백봉 김기추 지음
운주사 | 10,000원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백봉 김기추 거사 법문집
장순용 편저
판미동 | 15,000원

강원도량 전화 055-756-6707, 010-7202-1035 팩스 055-762-6708